

大學入試의 自律化와 合理化

金 豪 權

(嶺南大 教育學科)

필자는 대학 입시가 한국 교육의 줄기 어려운 難題이며 대학 입시와 관련된 경쟁성도 쉽사리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현행 대학 입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학 입시의 自律化와 合理化의 방향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개혁안의 한 요소인 適性試驗의 문제점도 비판적인 각도에서 분석해 나간다.

1. 머리말

서양교육사에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중세의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 도시인 ‘살레르노’와 북부 도시인 ‘볼로냐’를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의 대학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중세 대학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확한 기록은 없는 모양이지만, 대략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에 이들 두 도시에 명성이 높은 학자들이 모여들어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런 소문이 유럽의 각 지역에 전해지면서, 학구욕에 불타는 청년들이 이 두 도시로 몰려 든다. 많은 학생들이 이 두 도시로 모여들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우선, 방세가 뛰고 생필품의 물가가 올랐을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힘으로는 이런 사태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궁리 끝에 학생들은 학생조합을 만들어 시민들에 대항한다.

이런 학생조합을 university 라고 불렀던 모양이다. 학생조합은 시민들과 맞서서 방세와 물가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도시로 集團退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하기야 이때의 대학은 대학 소유의 건물도 캠퍼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가능했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닌 대학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거두어 氣高萬丈해진(?) 학생들은 공격의 화살을 교수에게로 돌린다. 그들이 교수에게 제시한 요구 조건이 또한 기발하고 매섭다. 가로되 “강의에 5명 이상의 학생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인기없는 교수는 벌금을 물어라”, “교수가 도시를 떠날 때에는 틀림없이 돌아오겠다는 서약을 하고 공탁금을 맡겨라”, “강의에서 서론을 너무 길게 끌거나 중요한 부분을 슬쩍슬쩍 피해가는 식으로 강의해선 안된다” 등등. 화가 치민 교수들도 궁리 끝에 교수조합을 만들기에 이른다. 교수조합도 학생

들에 맞서서 요구 조건을 내놓는다. 가로되 “수강료를 낸다 하더라도 아무나 가르치지 않겠다. 입학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서 통과하는 자만을 가르치겠다.” 교수조합의 이런 요구 조건도 관철되었다. 아마도 이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大學入試의 효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세의 대학 입시에 비해서 오늘날 이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시는 처참하리만큼 잔인하고 냉혹하다. 필자가 이 글을 청탁받은 뒤에도 서울 S여고의 3학년 여학생이 입시의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달리는 전동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조선일보, 1989.11.12, 제18면).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줄곧 1등을 해왔던 서울의 某고교 1년생이 “나는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극약을 마셨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다(조선일보, 1989.11.30, 제19면). 물론 입시로 말미암은 고교생의 자살은 이들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매년 출잡아 150명 내지 160명 정도가 입시와 관련하여 자살을 해왔다고 한다. 또 이런 자살 사건은 입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없는 한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최근에 文教部와 大學教育協議會는 또다시 大學入試 改善案을 성안한 모양이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적성 시험으로 바꾸고, 대학별 학과 고사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고, 내신제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 그 개선안의 골자인 것 같으나, 그 정도의 처방으로 해묵은 입시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풀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훌륭한 해결책이 지금까지 제안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지는 심정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 새로운 개선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허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릴 생각은 없다. 또한 필자 나름의 절묘한 제3의 개선안을 내보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필자는 한국 교육의 難題 중의 難題라 할 수 있는 大學入試를 앞에 놓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는 심정으로 문제의 근원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되짚어 보면서 문제 인식과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몇 가지의 前提의 考察

우선 대학 입시라는 문제의 근원적인 성격을 몇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며 음미해 보아야 하겠다. 물론 이런 분석이나 음미가 과거에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 난해성에 비추어 보아 이런 일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되풀이해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대학 입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競爭은 어떤 妙方을 쓰더라도 좀처럼 一掃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으랴? 그러나, 대학의 入學定員을 대폭적으로 늘리든지 또는 아예 定員制를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전혀 없지는 않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둘러싼 競爭은 二重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 定員을 크게 늘리거나 定員制를 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세칭 일류대학이 그대로 있고 세칭 삼류대학이나 사류대학이 그대로 있는 한, 경쟁의 양상만 바뀔 뿐 경쟁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필자는 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협소한 국토와 과다한 인구와 빈약한 부존 자원 등의 사회 여건 때문에 예상되는 치열한 生存競爭에 대한 국민의 잠재적 불안감 그리고 대학교육(그 중에서도 일류대학 교육)이 생존 경쟁에서의 유리한 高地를 확보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학부모의 實利的 대학교육관에 起因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사회 여건과 의식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치열한 경쟁의 度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경쟁의 의미를 合理化하는 길밖에 없다. 극심한 경쟁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맹목적이고 허무한 自己消耗의인 경쟁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경쟁으로 바꾸는 방안이 우리에게 허용된 선택이다.

둘째로 앞서서도 이미 말했지만, 대학 입시의 문제는 지난 40년의 우리의 大學教育史上 어느 누구도 신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장 큰 難題였다는 사실의 재확인인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 말은 그것이 워낙 어려운 문제니까 아무나 선불리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

에는 오히려 그것이 하도 어렵고 안 풀리는 문제인 만큼 누가 언젠가는 妙方을 내놓겠지 하는 安易한 자세로서는 문제 해결이 될 리가 없다는 뜻이 더 강하게 들어 있다. 좀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入試制度는 수 없이 많은 即興的인 땀과 짜집기로 만신창이가 된 누더기의 모습과 같다고나 할까? 논설고사를 넣었다가 뺐다가, 왜 四肢選多型만이냐라는 비판이 이니까 문항 형태로서는 最惡의 형태인 短答型 문항을 일론 집어넣고, 여론에 밀려 內申比率를 높였다 낮추었다 하는 변덕은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겠다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研究 投資가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의 손쉬운 채택이 있기 전에 그 새로운 정책이 10년 후나 20년 후에 벗어날지도 모르는 뜻밖의 副作用을 미리 꿰뚫어 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한 입시가 難題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의 해결책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에는 100개를 훨씬 넘는 대학이 있다. 그 중에는 입학 정원이 5,000명에 육박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500명에도 미달하는 대학이 있다. 이런 이질적인 대학에 하나의 획일적인 제도가 맞아들 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진실로 大學入試의 改革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뼈를 짚는 심정으로 돌이켜 보고 自問自答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가 말로는 입시 개혁을 외치면서 내심으로는 도리어 입시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뜻이다. 예컨대, 필자의 부절없는 기우이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기성 세대 중에는 “이 녀석들을 입시 공부에 묶어 놓아야지, 풀어주면 모두 거리로 뛰쳐나가 무슨 비행을 저지르지 알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우리 사회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먹고 사는 계층이나 기업체나 기관이 많이 있다. 예컨대, 수험 참고서의 출판 업자, 입시 학원, 입시 잡지사, 사설 독서실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해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들은 거의 대부분 현행 입시 제도의 존속을 바라는 세력일 것이다. 물론 입시와 관련한 이들의

공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장래가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면, 한 나라의 발전은 대학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이 사회의 각계 각층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학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일류대학이나 세칭 명문대학은 바로 그 사실 자체를 하나의 기득권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입생의 80%쯤을 학력고사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로 채워 넣고, 혹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나 아닌지? 그 대학이 진실로 일류대학이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대학이 진실로 知性人의 집합체라면, 自己耽溺이나 獨善主義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소위 入試產業에 종사하는 기관이거나 대학이거나 고등학교이거나를 막론하고 또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계층을 막론하고,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해 관계를 조금씩이라도 후퇴시키면서 모든 청소년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며 도움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하는 心機一轉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3. 發展된 大學과 大學入試의 모습

이제 문제의 핵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찾아 보고, 문제 해결의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그 波及效果가 오래 지속되는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수립이나 수정에 있어서는 目前의 이익이나 업적에 사로잡히는 短期主義가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며 대비하는 長期眼目이 필요하다(정범도, 1989). 하물며 교육 정책이나 입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라? 기실, 우리의 입시 정책이 흔히 ‘朝令暮改’니 ‘땀질’이니 하고 비판되고 또는 매도당해 온 중요한 원인으로 이런 長期眼目을 갖추지 못한 채 허둥대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의 우리의 발전된 미래의 대학에서 요구되는 입시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떠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正常的이며 발달한 高校生活

하루에 14 시간이나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는 입시 준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결석없이 꼬박꼬박 학교에 나가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며 하루에 2~3 시간 정도로 착실하게 예습과 복습을 해나가고 성적도 中·上位圈에 드는 학생이었다면, 그의 고교 생활은 분명히 正常的이고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학생이 반드시 전국 최고의 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특색있는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문제는 어지간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학생이 공부 시간의 틈을 내어 교내·외의 여러 가지 특별 활동, 예컨대 각종 운동부나 문예반, 미술반, 연극반, 합창단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상당한 재능도 인정되었다면, 그는 正常的이고도 濼濼한 고교 생활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대학 합격 가능성이 공부 한 가지만을 잘하는 학생들보다도 월등하게 높다면 문제는 거의 다 풀린 셈이다.

필자의 이러한 말 중에는 앞으로 더 명확하게 규정받아야 할 용어가 많다는 사실을 필자도 알고 있다. 中·上位圈의 성적이라는 말도 그렇고 특별 활동의 종류도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의 경쟁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면, 상당한 정도의 입시 준비 공부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2) 高度의 教育的 判斷을 바탕으로 하는 學生選拔의 원칙

이론적으로 학생 선발권은 대학의 고유 권한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것은 대학이 自律的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입시 방법의 대체적인 골자는 혼란을 방지한다는 범위 안에서 文教部나 大學教育協議會의 차원에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나 선발 원칙 등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자율화의 의미를 좀더 폭 넓게 해석하고 싶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율화도 가능하고 또 현행 입시의 여러 가지 폐단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

런 관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해 보겠다.

첫째로 高得點者順이라는 鐵則에 의하여 학생을 뽑는 방법이 과연 합당한 唯一의 방법인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본다면 대학도 하나의 조그만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는 어느 정도의 이질적인 능력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야 서로에게 자극도 주고 활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예컨대, 대입 학력고사에서 300 점 이상을 얻은 고득점자들로만 또는 그런 ‘공부벌레’(?)들로만 구성된 대학이나 학과가 있다면 삭막하기조차 할 것이다.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만으로도 定員을 채울 수 있는 학과에서는 일부러라도 300 점 이상자로 定員의 50%를 채우고, 나머지 30%를 280~299 점대에서, 정원의 20%를 260~279 점대에서 뽑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방법이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학생 선발권의 완전한 자율화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둘째로 필자는 대입 학력고사의 과목별 득점 상황은 전혀 참작되지 않은 채 총점만으로 합격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다는 간략화된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겠다. 예컨대, 3 명의 응시자가 각각 50 점 만점의 3개 과목만으로 구성된 대입 학력고사의 득점 상황이 아래의 표와 같았다고 가정하자. 현행 입시의 사정 원칙에 따라서 1 명의 합격자만을 고른다면, 이 3 명의 학생이 응시한 학과가 수학과 이든 영문학과이든 교육학과이든 간에 합격자는 학생 A이다.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3 명의 학생의 지망 학과가 수학과이고 필자도 수학과 교수라면, 그리고 만약에 필자에게 총점뿐만

학 생	국 어	수 학	영 어	총 점
A	35	35	35	105
B	30	43	30	103
C	40	20	40	100

아니라 과목별 점수도 고려하는 재량권이 주어졌다면, 필자는 총점으로는 최고 득점자인 학생 A를 제쳐 두고 103 점의 총점을 따낸 학생 B를

합격자 후보로 지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 B는 학생 A에 비해서 국어와 영어의 득점은 좀 낮지만 전공 과목인 수학에서는 훨씬 좋은 점수를 얻었고, 이런 학생들이 수학과에 들어와야 학과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교육적 소신에 입각하여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또 필자가 국문학과나 영문학과의 교수이고, 3명의 학생이 국문학과나 영문학과를 지망했다면, 필자는 합격자 후보로 최저 총점 득점자인 학생 C를 선택했을 지도 모른다.

필자의 이런 두 가지의 의문 제기 내지 제안은 기실 高得點者順이라는 전통적인 입시 사정의 鐵則에 대한 하나의 터무니 없는 도전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입 학력고사의 득점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學力이라고 하는 心理的 내지 教育的 屬性의 크기를 측정해낸 하나의 測定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心理測定理論이나 教育評價理論에 의하면, 이런 測定値는 測定誤差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略數(approximate number)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예컨대, 위에서 보인 보기에서처럼 105 점이 반드시 103 점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추가 정보가 없는 한, 105 점과 103 점의 차이는 거의 무의미한 차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필자 자신의 한 推定에 의하면 300 점 이상을 단점으로 하는 현행 대입 학력고사의 총점 속에는 ± 19 점 이상의 측정 오차(측정의 표준 오차)가 내포되어 있다(김호권, 1989).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입 학력고사의 득점을 절대시할 것이 못될 수도 있다는 필자의 문제 제기가 터무니 없는 것인가, 아니면 단 한 점에도 승격과 불승격이 엇갈리는 非情한 高得點者順이라는 鐵則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현행의 입시 사정 원칙이 터무니 없는 것인가?

그밖에도 대입 학력고사의 총점에는 또 다른 측정상의 헛점이 감추어져 있다. 학력고사의 총점은 결국 교과별 고사 득점의 합산점이 아닌가? 그런데 교과별 득점 분포를 분석해 보면, 산술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이 교과별로 다양각색임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교과별 고사를 각각의 독립된 학력 측정의 척도라고 가정한다면, 표준편

차의 크기가 다른 척도들의 측정치를 무턱대고 합산한다는 것은 자 눈 사이의 간격이 서로 다른 척도의 측정치를 합산하는 일과 같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말하자면, 표준 편차의 크기가 적은 고사는 자 눈 사이의 간격이 촘촘하게 細分해 있는 밀리미터(mm) 척도와 같고, 표준 편차의 크기가 큰 고사는 자 눈 사이의 간격이 드문드문 거칠게 그어진 인치(inch) 척도나 몇 자 몇 치인가를 가리키는 尺貫法의 척도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 편차의 값이 다른 고사 득점을 그대로 합산한다는 것은 밀리미터 척도와 인치 척도와 척관법 척도에서 나온 측정치들을 구별없이 합산하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런 것이 되고 만다.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절차를 거쳐 나온 점수가 바로 대입 학력고사의 총점인 것이다.

여쩌면 대학은 대입 학력고사이든 또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適性試驗이든 간에, 고사에서 산출된 原點數를 그대로 査定點數로 사용하는 관행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는 일이 중요하다. 原點數에 대한 盲信이나 맹목적인 집착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한, 대학 입시의 근본적인 합리화나 진정한 자율화는 百年河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실, 정상적인 고교 교육에 대한 대학 입시의 그 무서운 파괴력도 따지고 보면 原點數 絕對視의 관행 때문이 아닌가? 한 점이라도 더 따야 한다는 경쟁의 강박 심리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말은 쉽지만, 원점수 절대주의의 맹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대학 당국과 대학 교수의 확신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온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승복해 주어야 한다. 5년이 걸리더라도 10년이 걸리더라도 확신과 승복을 따내는 참을성과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대입 학력고사는 입학 사정의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라, 입학 사정의 유력한 참고 자료라는 새로운 자리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측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대입 학력고사가 입학 사정의 절대적인 자료에서 유력한 자료라는 위치로 물러서므로 해서 생긴 공백

을 배꾸어 줄 대학 나름의 또는 학과 나름의 설득력 높은 '교육철학'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런 교육 철학은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나름의 독특한 창학 정신이나 건학 정신으로부터 유도될 수도 있고 대학의 독특한 학풍이나 전통이나 지역 사회적 기능 등으로부터 유도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령 철저한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라든가, 응용 과학보다는 기초 과학의 중시라든가, 다학문적 접근의 강조라든가, 학문에의 집착보다는 全人的인 인격의 완성이라든가 하는 새롭고 독특한 대학 나름의 선명한 학풍으로 재통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학생 선발이나 입시 사정의 實踐의 原理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풍이나 학생 선발의 원칙은 대학의 교수 층원의 원칙으로도, 학과 구성이나 교과과정의 편성 원칙으로도 明示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일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고 하루 이틀에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님도 분명하다.

3) 개인의 學習史와 生活史의 생생한

자료로서의 內申制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교 내신제의 큰 장점은 고교 3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학업 상황이나 고교 생활 상황에 관한 비교적 생생한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성적을 준거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형성된 대입 학력고사의 성적보다도 내신 성적의 예언 타당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에도 수긍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한 공식에 의하여 이 생생한 자료를 점수화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분명히 得보다 失이 많은 잘못된 방법이다. 왜냐하면, 내신 자료가 갖고 있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점수화의 순간 그 점수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한 결석의 기록도 그것이 평소의 불성실하고 불규칙적인 학업 생활 때문인지, 불의의 교통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이유 때문인지를 밝히는 학생 이해의 시발점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지만 내신성적이라는 점수의 동일한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내신 자료와 대입 학력고사의 결과 자료는 서로 補充的인 자료라는 각도에서 종합적인 학생의 이해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학력고사 자료에서는 중점만이 밝혀져 있지만, 내신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학생의 학력이 어떤 교과에서 강하고 어떤 고사에서 약한지를 읽어낼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두 고교의 비슷한 내신 성적이나 내신 자료만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추적하기 어렵지만, 학력고사의 자료를 통해서 서로 다른 고교의 비슷한 내신 성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헤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신 자료에 담겨야 할 정보가 어떤 것이어야 하며, 그런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는 좀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4. 이른바 適性試驗에 관하여

문교부는 최근에 또 다시 새로운 大學入試 改革案을 만들어 적절한 심의 과정을 거쳐 1993학년도쯤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개혁안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종래의 대입 학력고사를 돌로 쪼개어 이른바 適性試驗과 전공 기초 시험으로 나누었을 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래의 대입 학력고사에 포함되었던 국어, 수학, 영어의 3개 교과가 떨어져 나와 適性試驗을 구성하고, 대입 학력고사 속의 나머지 교과목 중 대학이나 학과별로 2개 교과 정도로 전공 기초 시험을 구성하게 된다는 느낌을 준다. 그밖의 차이점을 구태어 늘어 놓는다면, 적성 시험은 100%의 객관식 출제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전공 기초 시험은 주관식으로 대학 단독이나 대학 연합 출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종래의 대입 학력고사가 부분적으로나마 전공 기초 시험의 형태로 살아 남는 한편, 적성 시험이라는 새로운 흑(?)만 하나 더 불이게 될 셈이다. 이제 남은 지면을 이용하여 이런 개혁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개혁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잠시 논의할까 한다.

첫째로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대입 학력고사가 부분적으로나마 전공 기초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남고 거기에 적성 시험이라는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계에 퍼져 생소한 또 하나의 고사가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적성 시험은 그 내용의 생소성으로 말미암아 적용 초기에는 큰 혼란마저 불러 일으킬 염려가 크고, 필경 適性課外라는 前代未聞의 열풍을 초래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한 예측이다. 이 개혁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短期間の 훈련으로는 적성 시험의 득점을 끌어 올리기 힘들다고 강변하는 듯하다. 이같은 소리는 入試熱風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잠꼬대같은 허황한 희망이다. 단기간으로 안 된다면, 장기간의 超人的인 집중 과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적성 과외가 일어난다면, 선반 교사로서의 적성 시험의 수명은 극히 短命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예측이다.

둘째로 굳이 적성 시험이라는 것을 대학 입시의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해야 할 이유가 분명치 못하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흔히 학력과 적성의 차이점은 학력은 조직화된 학교 교육의 직접적인 知的學習成果인 반면에, 적성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갖게 되는 덜 조직화된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知的學習成果라고 구별된다. 이런 구별이 틀림없다면 적성 시험의 得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학교의 優劣差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適性에서 덜 일어나는 경향이다(단, 집중적인 적성 훈련이 없는 조건하에서). 예컨대 적성 시험이 대학 입시 방법으로 등장한다면 지방 고교생들이 상대적으로 득을 보게 되고 서울의 고교생, 그 중에서도 8학군의 고교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것이 득이라면 득이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의 성적을 준거로 하는 豫言妥當度의 측면에서는 학력쪽보다는 적성쪽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적성 검사를 대학 입시의 기본적 자료로 무리없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적성 시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통일된 교과과정이 없다. 국정 교과서 제도도 없다. 수 없이 다양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학교의 우열차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넓고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학력고사를 만든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혹시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적성 시험이 무리없이 사용되고 있으니 우리 대학에서도 사용해 볼 만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적성 시험의 득점 자료에서 高得點者順으로 합격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입학자 전형을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두고 싶다.

셋째로 전공 기초 시험을 주관식으로 출제한다는 데에서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본다. 주관식 출제에도 물론 여러 가지 출제 형식이 있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술식 문항과 같이 응시자에게 비교적 긴 답안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려고 한다면, 시험 시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다면 넓은 교과 내용 중에서 어떻게 형평성을 잃지 않는 출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출제 기술상의 큰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응시자들에게는 출제될 소수의 문제를 올바르게 예측해야 하는 엉뚱한 부담이 새로 추가된다. 이 예측이 빗나간다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조차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손쉬운 단답형이나 완성형의 출제를 택한다면, 기계적인 암기 학습을 조장한다는 폐단뿐만 아니라 모처럼의 주관식 출제의 의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잘못을 자초할 염려조차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소성의 위험을 무릅쓰고 승산도 뚜렷하지 못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이것이 하나의 모험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가져다 줄 피해는 너무나도 크며, 우리의 대학 입시의 궁극적인 개선은 더욱 더 요원해질 따름이다. *

〈參考文獻〉

- 김호권, 大學入試의 測定·評價論의 研究, 대학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 기초 강연 자료, 한국교육학회 교육평가연구회, 1989, p.5.
정범모, 未來의 選擇(나남新書 112), 서울: 도서출판 나남, pp.75~108.